

아! 6월

유 철 희 | 전 충남도청 부지사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성당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친다.
6.25 9일전인 6월 17일부터는 남북이 하나되기를 바라며 9일 기도를 한다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혈뜬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낮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는 언제 이루어질는지 기약이 없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분단의 벽은 더 굳어지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의 소원인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가녀린 촛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6.25는 나에게 ‘사변’ 또는 ‘동란’으로 새겨져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나갈 무렵(당시 새학년은 9월에 시작되었다) 평화롭던 이 땅에 전쟁의 포연(砲煙) 터진 것이다.

나이도 어리고 시골에 살던 나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7월초쯤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 ‘사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얼마간의 시일이 지난 뒤 동네에 완장을 찬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경찰서’가 ‘내무서’로 바뀌고,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마을마다 생길 때 쯤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동안 나와 우리 집안이 겪은 고초(苦楚)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형님이 경찰관이었기에 우리집안은 이른바 ‘반동’으로 몰린 것이다. 다행히 형님은 남쪽으로 피란을 가서 화는 면했지만 우리 가족은 인민위원회에 나는 소년단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자아비판’을 해야만 했다.

공산당들은 우리 집에 대해 감시의 눈초리를 떼지 않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수색을 하는 통에 형님이 쓰던 책과 소지품들을 몰래 불태우느라 애를 먹었다.

9.15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수복이 된 뒤 아버지는 치안대장이 되어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애쓰시다가 공산치하에서 겪었던 고생이 빌미가 되었는지 휴전되던 해 가을에 세상을 뜨셨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산당이라면 치를 떨던 내가 60년이 지난 지금 그들과 화해와 일치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쓴 웃음을 짓는다.

6월의 햇살이 따갑다. 산과 들은 그 때 그날처럼 질푸름이 수를 놓고 있다. 지구저편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열기가 이 땅에도 불어와 거리에는 젊은이들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광장마다 거리마다 붉은 물결이 넘실대는 것을 보면서 그 젊은이들의 가슴에 6.25는 어떤 의미로 새겨져 있을까 생각해 본다.

‘맨주먹 붉은 피’로(6.25의 노래 일부) 공산당과 맞서 싸울 의지는 없다 하더라도 ‘6.25는 북침이라느니 어떤 식으로든 통일되어야 한다’는 식의 마음가짐을 버려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의 지나친 욕심일까? 오늘도 나는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자유를 수호하기위해 낯선 나라에 와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 이산(離散)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남북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 내 마음속의 외침이 들려온다.